

## “우린 여전히 그날, 그 현장에 갇혀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2주기... 당신은 '안전' 하십니까 <중>

### 참사 피해 생존자의 증언

인파에 깔렸다 극적으로 구출  
대인기피증 등 후유증 시달려  
숨진 옆 사람들 생각에 죄책감  
책임자 아닌 희생자 비난 고통

“그날 내가 구조되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이 살지 않았을까요?”

159명의 꽃다운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당시 인파에 깔렸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생존자 이모(36·광주시)씨가 한 말이다.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친구들과 서울로 향한 이씨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태원을 찾았다가 참사에 휘말렸다. 사고 당일 이태원역 1번 출구로 나가자마자 이씨 일행은 의지와 상관없이 인파에 휩쓸려 해밀턴호텔 골목까지 이동했다.

‘위험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미 이씨는 가고싶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인파에 휩쓸려 골목길을 내려가던 이씨는 서서히 붐 뜨는 느낌을 받으며 쓰러졌다. 가장 아래쪽에 깔린 이씨는 군중이 골반 위쪽까지 깔린 상태로 갇혔고, 극적으로 구조된 이후에도 하체에 장시간 피가 통하지 않은 데 따른 장기 손상이 심해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고 한동안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다.

이씨는 참사 이후 2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그 순간에 머물러 있다. 1년이 넘도록 불면증과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등에 시달렸다. 집 앞 골목길만 가도 사람들과 함께 깔려있던 순간들이 떠오르고 잠을 자다가도 바로 옆에서 사람들이 서서히 의식을 잃는 모습들이 불현듯 떠올라 호흡 곤란까지 겪었다.

심리치료를 받고 최근 결혼까지 하며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자 노력하고 있

지만, 당장 결혼식장에서도 하객들이 공간을 점점 채우자 자신도 모르게 공포감에 휩싸이기도 했다.

참사 이후 이씨가 느끼는 감정 중 공포나 두려움보다 ‘죄책감’이 가장 크게 이씨를 괴롭히고 있다. 당시 이씨가 수백명의 사람과 뒤엉켜 깔려있을 때 할 수 있는 몸동작은 고개를 돌리는 정도였다. 출동한 구조당국은 한 덩어리처럼 팔과 다리가 서로 뒤엉킨 피해자들을 한번에 빼낼 수 없었다. 위쪽부터 사람들을 구조하기에는 아래에 있는 생존자가 기다려주지 않았다.

서로의 비명은 그 무엇보다 간절했고, 몇번이나 의식을 잃고 되찾기를 반복했다. 구조대는 여러차례 뒤엉킨 사람들을 빼내기 위해 힘써보고 만약 미동도 안할 경우 옆 사람 구조를 시도했다.

이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이 이씨를 발견하고 구조에 나섰고 다리가 영커 실패하자 다른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이동할 때 이씨는 세상이 원망스러웠고 옆 사람이 밟기도 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경찰이 5~6명의 시민들과 함께 자신을 극적으로 구출했다. 이씨는 차가운 아스팔트에 누워 힘겹게 자신이 깔려있던 현장을 바라봤다.

아직도 구조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스러워 했고, 자신과 함께 비명을 지르던 옆 사람은 정신을 잃은건지 이미 숨진 건지 더 이상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한쪽에서는 시민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끝내 의식이 돌아오지 않자 자신의 옷을 덮어주기도 했다.

이씨는 “옆 사람들의 얼굴을 머릿속에서 지우질 못하고 있다. 살았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보다 죄책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라며 눈물을 흘렸다.

▶ 2면에 계속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KIA 타이거즈 포스트시즌 KS 5차전** KIA 타이거즈 팬들이 2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4 신한 SOL뱅크 포스트시즌 KS 5차전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에서 KIA 타이거즈의 V12 달성을 위해 열띤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나건호 기자

## 전남,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 중 10곳 '전국 최다'

### 산림청·수목원정원관리원 선정 화순 바우정원·고흥 속섬속섬 등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선정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전남 10개소가 포함돼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민간정원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정성을 다해 가꾸은 정원을 시·도지사가 등록하고 일반에 개방하도록 하는 정원이다. 전국에 150여 개소가 있으며, 전남에는 총 27개소가 등록돼 있다.

이번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은 지난 7월부터 전국 민간정원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전문가 현장심사, 대국민 온라인 투표 결과를 종합해 △풍경이 좋

은 정원 △습이 있는 정원 △전통과 예술 정원 △즐거는 정원 △색다른 정원 등 5개 주제로 선정됐다.

풍경이 좋은 정원으로는 숲과 기암괴석, 예술 오브제가 결합한 '화순 바우정원'과 섬으로 가는 뱃길과 원시림, 바다 풍경이 함께한 '고흥 힐링파크 속섬속섬'이 선정됐다. 습이 있는 정원엔 저수지와 산을 조망하는 순환형 안뜰 정원인 '해남 문가든'이 이름을 올렸다.

전통과 예술정원에 70년 세월을 품고 있는 플라타너스가 있는 '구례 반야원', 300년 고택과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구례 쌍산재', 폐교를 미술과 문화공간으로 만든 '고흥 하담정', 순천만과 농촌경관을 그리고 조성한 '순천 화가의 정원산책'이 포함됐다. 즐기는 정원으로는 편백나무

숲속 사계절이 아름다운 '보성 성립정원', 동서양 식물이 함께 있고 풍경이 아름다운 '담양 죽화경', 색다른 정원엔 매화와 향나무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진 '구례 천개의 향나무숲'이 선정됐다.

전남도는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관광 브랜드화를 위해 매년 전남도 예쁜정원 콘테스트를 추진, 도민이 오랫동안 정성을 다해 가꾼 정원을 민간정원으로 지속해서 발굴하고 있다.

박종필 전남도환경산림국장은 "전남의 민간정원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정원이 주는 휴양과 치유를 느껴보길 바란다. 앞으로도 전남의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12  
ANNIVERSARY  
제12회 지방자치의 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GOVERNORS ASSOCI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ww.gaok.or.kr

## 한마음으로 키워 온 지방자치 대한민국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축하합니다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만들어 갑니다.